

전남대-여수대 통합 갈등 '점입가경'

여수시, 시너지 효과 연구 용역... "학생수·학과 축소"

전남대 "경쟁력 상승" 반박에 여수시 "결과 왜곡" 설전

10년 전 진행됐던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을 둘러싼 여수시와 전남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통합 효과를 놓고 반박과 재반박이 꼬리를 무는 격렬한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자칫 지역 사회와 대학간 대립으로 변질 조짐도 감지된다.

논란의 시작은 여수시가 지난 8월 여수대와 전남대의 '통합 시너지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대학 통합의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여수시는 (재)지식산업연구원 용역 결과를 내세우며 통합으로 오히려 대학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다가 하면, 통합 과정에서 체결했던 양해각서 주요 내용의 미이행을 강조하며 전남대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여수시는 특히 ▲한의대 설립을 인가 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 완성 전까지 여수캠퍼

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통합양해각서'가 10년이 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불만을 표출했다.

여수시는 아울러 여수캠퍼스의 통합 이후 학생 수 감소(2005년 4691명→2015년 3357명), 재정지원 및 학과 축소 등도 문제삼았다.

그러자 전남대는 '통합 10년 성과 뚜렷', '여수캠퍼스 브랜드가치·경쟁력 상승'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남대는 자료를 통해 "여수시의 용역보고서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변질됐다"고 깎아내렸다.

통합 본래 목적인 교육·연구·취업 등 대학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인지도 상승은 간과한 채 양적인 규모 축소(재정·학생수·교직원수 등)만을 부각시켰다는 게 전남대 입장이다.

지방분권 전남대 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

담회에서 "통합 이후 대학 본래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 취업 경쟁력이 향상돼 대학의 인지도 상승 및 위상 강화로 이어진 사실이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특수교육전문가 양성', '2000t급 실습선 건조', '맛춤형 스마트플랜트 인력양성', '호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유치' 등 여수캠퍼스의 수산해양 및 공학 분야 특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시를 겨냥한 듯, "(병원 설립 등과 관련), (병원 설립·유치 등을 위한) TF 한번 해보자는 요청 한번 받아본 적도 없다"고 무성의함을 꼬집었다.

여수시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잘못된 분석"이라며 재반박하며 반발했다.

여수시는 특히 "여수캠퍼스 한의대 및 전문병원 설치 실패해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통합지원금도 여수캠퍼스 위주로 집행되지 않는 등 활성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와의 약속은 저버리고 지난해 순천 신대지구에 500평

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반감도 반영됐다.

전남대도 지지 않았다. 여수캠퍼스 학생들의 광주 캠퍼스로의 전과가 한때 50%까지 치솟는 등 자칫 캠퍼스 공동화 현상이 우려돼 올해부터 전과를 제한토록 했고 매일 한 차례 여수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는가 하면, TF팀을 구성해 나름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집단'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지나치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 및 전남대 병원 여수유치를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을 기획,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입장에서 내놓았다.

한편, 여수시는 이같은 점을 들어 10월 초 전남대와 여수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3차 토론회'를 열어 통합 이후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하지만 전남대측은 "정식 요청을 받은 바 없어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토론회 개최 여부도 미지수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1, 해질 18:48, 달출몰 03:15, 달몰림 16:58

청명한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	맑음	보성	맑음	13/27	
광주	맑음	16/28	보성	맑음	13/27
목포	맑음	17/26	순천	맑음	15/29
여수	맑음	19/27	영광	맑음	14/28
나주	맑음	13/29	진도	맑음	15/27
완도	맑음	17/27	전주	맑음	14/28
구례	맑음	12/29	군산	맑음	16/27
강진	맑음	14/28	남원	맑음	16/28
해남	맑음	14/27	축산도	맑음	20/24
장성	맑음	13/28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0.5~1.5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남부	앞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50
- 빨래 90

◇돌매

목포	밀물	썰물
	00:16	05:44
	12:24	17:48
여수	밀물	썰물
	07:29	01:28
	19:52	13:24

◇주간 날씨

날짜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날씨	☀	☁	☀	☀	☀	☀	☀
기온	17/27	19/23	17/25	15/27	16/27	18/27	18/27



광주시농민회는 9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농업 예산 증액 등을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밥쌀용 쌀 수입 즉각 중단하라”

광주 정치권·농민단체, 촉구 건의안 정부 전달키로

광주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잇따라 촉구했다.

광주북구의회는 9일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봄부터 겨울까지 농한기도 없이 일해도 우리 농민들은 생계유지조차 어렵다”며 “밥쌀용 쌀 수입으로 인해 일개 쌀 이종삼종의 막대한 피해와 국가기반산업인 우리 농업의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에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냈

다”고 말했다. 광주시농민회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밥쌀용 수입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고 농업 예산 증액 등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이 사라졌는데도 농민축산식품부는 수입하지 않아도 될 쌀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며 “정당한 명분도, 국익도 없으며 국산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쌀 재고 악순환을 낳는 밥쌀용 쌀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 424곳 건물 내장재 화재 취약”

새정치 박홍근 의원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건물의 내장재로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샌드위치 패널사용 교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135곳, 전남은 289곳의 초·중·고교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시설이 있다.

샌드위치 패널은 콘크리트보다 시공비가 저렴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지만, 불이 나면 쉽게 타고 유독가스 가와 인명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는 초등학교 56곳, 중학교 71곳, 고등학교 26곳의 창고·유유급식실·잔반처리실 등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다. 이 중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등 고정식 소화시설을 갖춘 곳은 초등학교 3곳, 고등학교 7곳 등 10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초등학교 163곳, 중학교 69곳, 고등학교 57곳의 창고나 부속건물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고정식 소화시설을 갖춘 곳은 고등학교 2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시설은 소화기만 갖췄다. 사용된 지 20년이 넘는 시설도 23곳이 나 됐고, 매점·화장실이 샌드위치 패널을 쓴 곳도 있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전남 다문화 학생 10% 학습부진”

새정치 유은혜 의원 “광주는 5%...초 1년생 비중 높아”

전남지역 다문화 학생 10명 중 1명은 학습부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명 중에 1명 꼴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초등학교 3~6학년 다문화 학생 학습부진 현황'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모두 해마다 다문화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초등의 경우 6학년에 비해 1학년이 2~3배 많았다.

학년별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는 1학년 2.25%, 2학년 2.02%, 3학년 1.56%, 4학년 1.29%, 5학년 1.14%, 6학년 0.77%로, 매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 역시 1학년 6.72%, 2학년 5.94%, 3학년 4.08%, 4학년 3.79%, 5학년 2.82%, 6학년 2.77%로 평균 4.35%를 기록했다.

6학년에 비해 1학년 점유율이 광주는 2.9배, 전남은 2.4배 높다. 전남의 1학년 비율 6.72%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다문화학생의 상당수는 우리말과 글이 익숙치 않은 부모에 의해 양육되면서 학습부진으로 분류되기 십상이다.

광주와 전남 모두 해마다 다문화 학생 715명 중 학습부진자는 38명으로 5.3%로, 전남은 2290명 중 251명으로 10.9%에 달한다. 이는 일반학생 중 학습부진자(광주 0.9%, 전남 5.7%) 비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교육지원사업에 참가하는 다문화학생은 광주 13.4%, 전남 28.4%에 그치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광주는 14위, 전남은 9위로 낮은 편이다.

특히, 광주는 다문화 지원사업 대상 20개 학교 중 11곳, 전남은 30개 학교 중 29곳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남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